



월간 주택시장 동향

Residential Market Report

2017. October
Vol. 59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주)

www.ARtoKorea.co.kr

Contents

R2Korea Real Estate Investment Advisory Inc.

Page 02_ 최근 부동산 ISSUE

Page 06_ 아파트 가격 동향

Page 08_ 비아파트 시장 동향

Page 10_ 아파트 수급 동향

Page 12_ 9월 동향 종합 및 10월 전망

“ ‘8.2 대책’ 후속조치 시행”

-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 2017.09.05)

❖ 투기과열지구 및 모니터링 지역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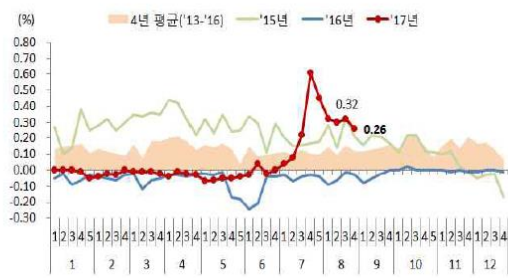
①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분당구**와 **수성구**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매매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국지적 가격불안 지속 및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

<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



< 대구 수성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



-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9.6일 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 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 받게 됨
-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될 예정임

② 집중 모니터링 지역

-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임

- 대상지역: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 ‘8.2 대책’ 후속조치 시행”

-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계속)

(국토교통부 2017.09.05)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8.2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여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 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거래량이 아래의 기준에 포함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선정기준 변경(안)]

구분	기존 기준	변경 기준(안)
주택가격 [㉠]	3개월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이상 상승	3개월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가격 [㉡]	없음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
청약경쟁률 [㉢]	연속 3개월간 20:1 초과	직전 2개월간 일반 5:1 초과 or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거래량 [㉣]	3개월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최종판단	㉠ or ㉢ or ㉣	㉠ + [㉡ or ㉢ or ㉣]

-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임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2017.09.0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 12.)되었다고 밝힘
-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허용

-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유기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유기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유기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함

② 임대유기기간 기산시점 명확화

-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유기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유기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조정됨

③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의 완화

-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자기관리형, 2억→1.5억 이상)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
- 이를 통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④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 개선

- 그 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각 지역*의 최소 면적을 합하여 2.5만㎡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했으나,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됨

“17.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9.7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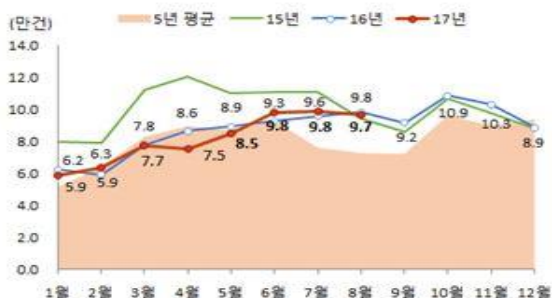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2017.09.25)

❖ 전월세 거래량은 14.4만건으로 전년 동월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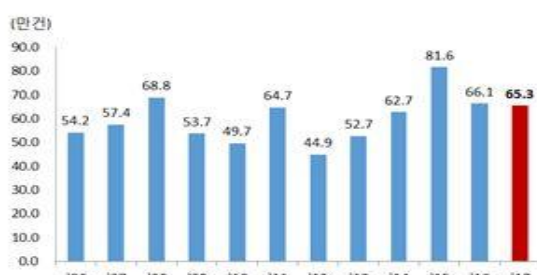
[주택 매매거래량]

- '17.8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96,578건)은 전년동월(98,130건) 및 전월(98,414건) 대비 각각 1.6%, 1.9%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72,615건) 대비로는 33.0% 증가함

[연도별 8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



[월별 전국 주택매매거래량]



- (지역별) '17.8월 기준 수도권 거래량(57,094건)은 전년동월 대비 소폭(0.5%) 증가, 지방(39,484건)은 소폭(4.5%) 감소함
- (유형별) '17.8월 아파트 거래량(64,300건)은 전년동월 대비 0.3%, 연립·다세대(18,810건)는 3.5%, 단독·다가구 주택(13,468건)은 5.0% 각각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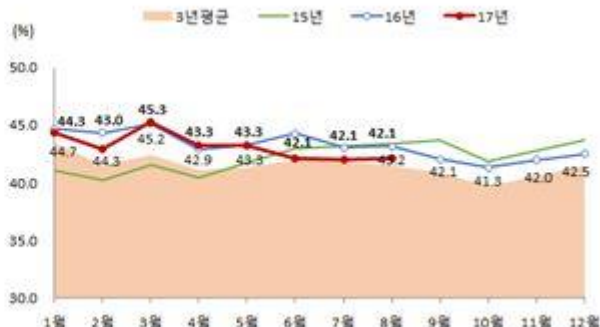
[전월세 거래량]

- '17.8월 전월세 거래량은 143,841건으로, 전년동월(14.4만 건) 대비 소폭(0.2%) 증가, 전월(13.2만 건) 대비 큰 폭(9.1%)으로 증가하였으며, '17.1~8월 누계기준으로는 114.9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3.5%) 증가함
- '17.8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2.1%로, 전년동월(43.2%) 대비 1.1%p 감소하였으나, 전월(42.1%)과는 유사한 수준임

[전월세 거래량 (전국)]



[월세 비중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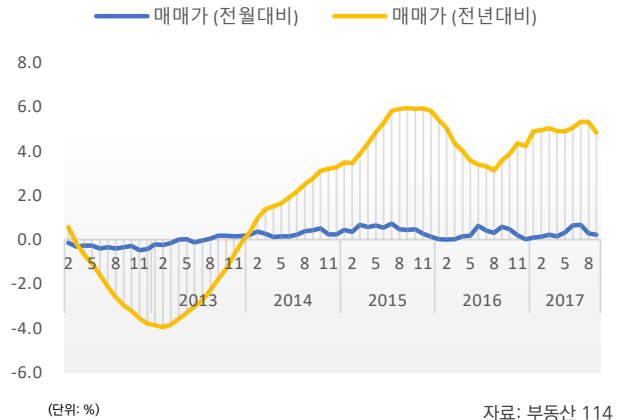


매매시장

❖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

- 9월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은 전년동월 대비 4.83%, 전월 대비 0.21% 상승함
- 8·2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매매가 상승폭이 둔화됨
- 지역별 매매가는 전월 대비 수도권 0.27%, 비수도권 0.02% 상승함
-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전월 대비 수도권 0.29%, 지방 0.28% 상승함
- 강남4구의 재건축 아파트 전월 대비 변동률은 강남구 0.21%, 서초구 0.12%, 송파구 1.98% 상승, 강동구 0.02% 하락함. 송파구는 잠실주공5단지 중심으로 가격 상승

[전국 매매가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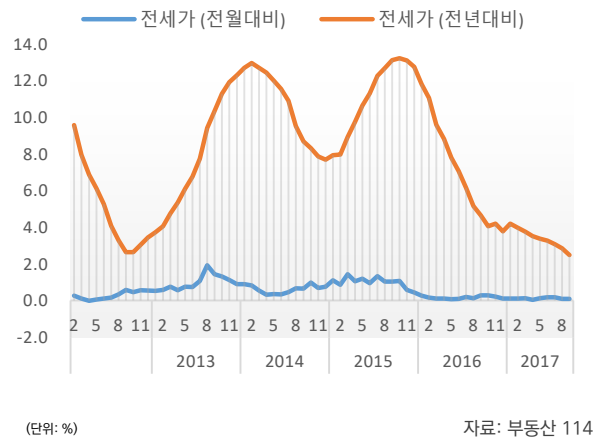


전세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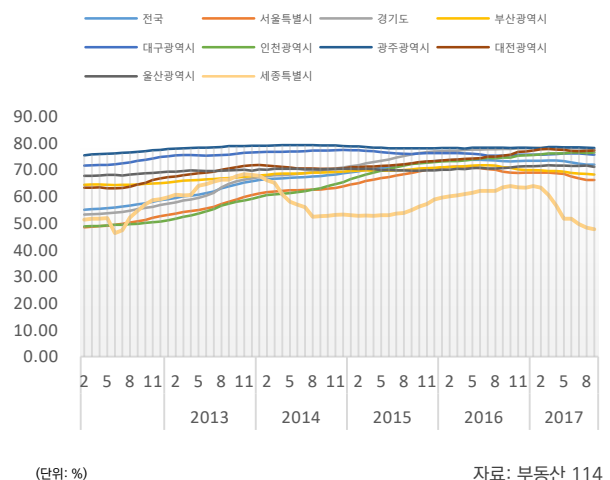
❖ 아파트 전세시장 동향

- 9월 전세시장은 전년동월 대비 2.49%, 전월 대비 0.09% 상승함
- 수도권 전월 대비 전세가는 서울시 0.27%, 인천시 0.15% 상승하였으며. 경기도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0.02% 하락함

[전국 전세가 변동률]



[지역별 전세/매매비율]



❖ 지역별 전세/매매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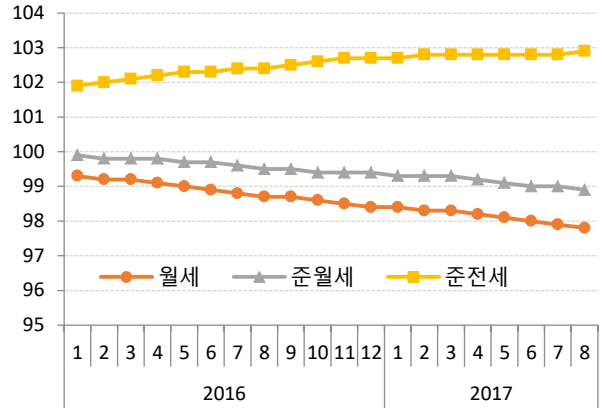
- 9월 전국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71.81%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함

월세시장

❖ 아파트 월세가격지수

- 2017년 8월 전국의 아파트 월세지수는 99.8 (2015년.6월=100)로 전월 과 동일
- 월세지수를 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구분하면 8월 월세지수는 97.8로 전월대비 -0.1% 하락했고, 준월세는 98.9로 전월보다 -0.1% 하락함. 반면 준전세는 102.9로 전월 102.8보다 0.1% 상승함
- 8월에도 준전세는 상승하는 반면 월세와 준월세지수는 하락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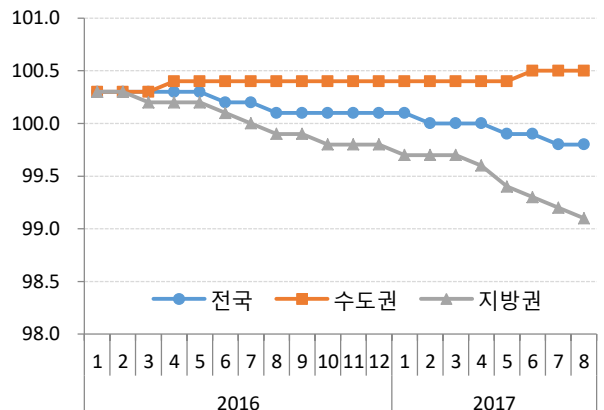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 지수]



자료: 한국감정원

- 지역별 수도권 월세지수는 올 하반기 이후 소폭 상승한 후 유지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월세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중임. 수도권의 경우 준전세가격이 오르며 통합월세지수가 상승 또는 유지되고 있으나, 지방은 수요는 적은 반면 공급물량은 많아 월세가격지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지역별 아파트 월세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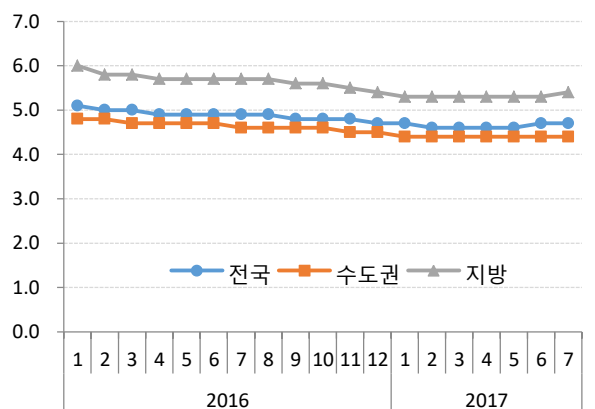


자료: 한국감정원

❖ 아파트 전월세 전환률

- 전국 아파트 전월세전환률은 7월 기준 4.7% 기록. 수도권은 4.4%가 유지되고 있으나, 지방은 5.4%로 전월 5.3%보다 1%p 높아짐
- 서울의 경우, 동남권이 3.9%로 처음으로 3%대에 진입함. 송파구가 3.6%로 가장 낮고 서초구(3.9%), 강남구(4.1%), 강동구(4.3%) 순임. 전세가격 상승만큼 월세가 오르지 않아 전월세 전환률이 낮아지고 있음. 비수도권 중에서는 세종시와 제주도가 각 4.7%로 전월세 전환률이 낮았음.
- 전월 대비 과천시와 세종시는 전환률이 전월보다 높아졌고, 거제시, 목포시, 서울 동대문구와 금천구, 제주시는 전월세전환률이 전월보다 -0.07%~0.04% 가량 낮아짐

[전국 아파트 전월세 전환률]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I 매매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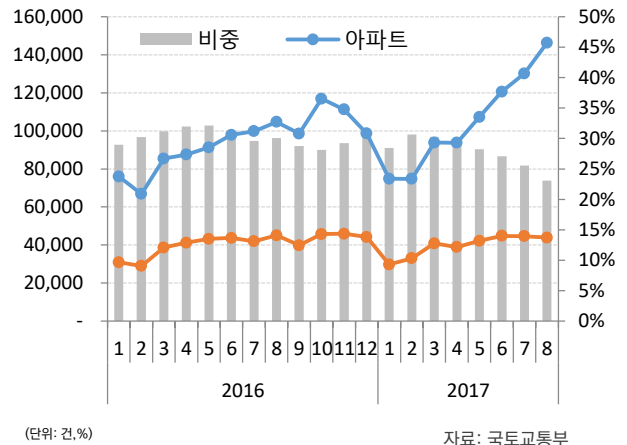
❖ 주택 거래동향

- 8월 전국의 주택거래량은 190,186건으로 전월 174,784건보다 8.8% 증가함. 아파트 거래량이 7월 130,161건에서 146,281건으로 12.4% 증가한 반면 비아파트는 43,905건으로 전월 44,623건보다 1.6% 감소. 이에 따라 비아파트의 거래비중은 전체 주택거래량의 23.1%로 낮아짐
- 주택유형별로는 연립이 4,424건으로 17.5% 줄었고, 다가구도 1,272건으로 전월보다 5.1% 줄었음.
- 반면 단독주택은 15,500건으로 1.9% 증가함.
- 다세대주택의 경우 서울은 은평구가 8월 861건으로 가장 많이 거래됐고, 강동구 699건, 강서구 664건, 송파구 664건 순이었음. 비아파트가 많은 지역 중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거래량이 많음. 특히 강동구는 작년 월 평균 거래량이 324건이었으나 올해는 536건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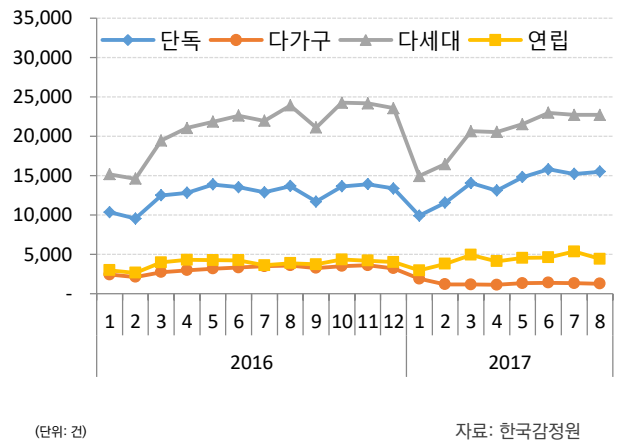
❖ 주택 시장 동향

- 2017년 8월 기준 전국의 주택 가격 지수 (2015.6=100)는 단독다가구 103.2%, 연립다세대 102로 전월보다 각각 0.39%, 0.10% 상승
- 단독주택은 전국 매매가격이 상승했고 대구와 광주가 전월대비 0.6%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광주는 올해 가격상승률이 꾸준히 높아 2016년 12월 대비 2.3% 상승
- 연립다세대는 광주(0.3%), 제주(0.3%)가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반면 충북(-0.3%), 울산(-0.2%), 경남(-0.2%)의 지수가 하락함.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세인 지역은 연립다세대도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17년 9월에 거래된 단독다가구 매매가는 서울 2,092만원/3.3㎡, 경기도 720만원/3.3㎡, 대구 719만원/3.3㎡, 부산 694만원/3.3㎡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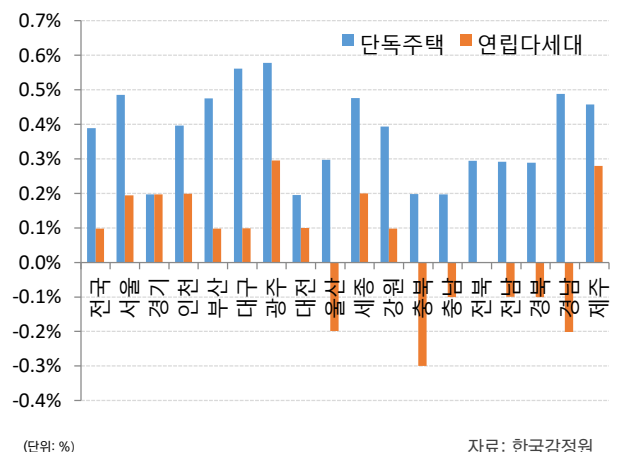
[전국 주택거래량 및 비아파트 거래비중]



[전국 유형별 주택거래량]



[7월대비 8월 주택가격지수 변동률]



I 임대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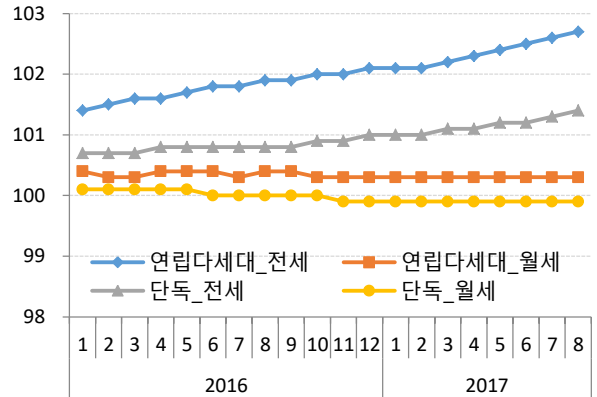
❖ 전세 시장

- 8월 비아파트 임대지수는 전세는 꾸준히 상승, 월세는 완만한 하락기조가 유지됨. 하지만 가격변동폭은 크지 않음.
- 단독주택 전세는 서울 서북권이 0.3% 상승했고, 인천(0.2%), 세종(0.2%) 등이 소폭 상승. 연립다세대는 서울 서북권과 동남권이 각 0.3% 상승했고, 울산(0.1%), 경북(-0.1%), 경남(-0.2%)은 소폭 하락함
- 8월 전국 전세 실거래가격은 단독다가구 8,432만원, 연립다세대 14,184만원임. 면적당 단가는 단독다가구가 계약면적당 610만원/3.3㎡만원, 연립다세대는 전용면적당 1,135만원/3.3㎡ 임. 서울의 경우, 전세가격은 이사철이 종료된 3~5월에 다소 하락했으나, 6월 이후 상승함. 서울 8월 단독다가구는 900만원/3.3㎡, 연립다세대는 1,508만원/3.3㎡ 기록

❖ 월세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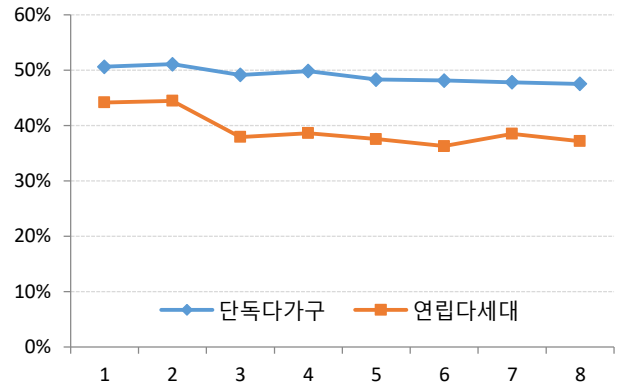
- 전국 비아파트 월세거래 비중은 점차 하락추세임. 2017년 1월 단독다가구 50.6%, 연립다세대 44.2%에서 8월에는 단독다가구 47.5%, 연립다세대 37.2%로 하락
- 지역별로는 8월 월세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으로 35.6%이고, 대전 36.7%임. 반면 경남(67.1%), 부산(65.7%), 울산(65.1%)은 60% 이상이 월세로 거래됨
- 비아파트 월세가격은 거의 변동없음. 단독주택은 가격 등락폭이 미미함. 연립다세대는 충북(-0.3%), 경남(-0.2%)의 월세가격 하락함
- 7월 전국 전월세 전환률은 단독 8.1%, 연립다세대 6.5%로 단독은 전월보다 0.1%p 낮아졌고 연립다세대는 동일함.

[주택유형별 전월세 가격지수 추이]



자료: 한국감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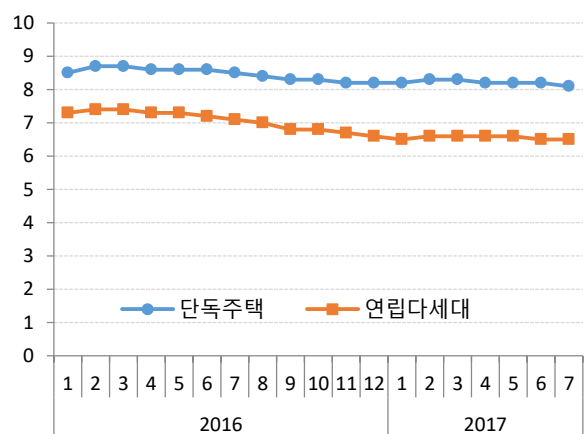
[2017년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비아파트 전월세전환률]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공급동향

❖ 아파트 입주 물량

- 9월 전국 아파트 공급물량은 31,333세대로 전월대비 9,103세대 감소함. 수도권, 지방에서 각각 11,570세대, 19,763세대 공급됨
- 지역별로는 경기도(9,976세대), 울산(3,848세대), 대구(3,612세대) 순으로 공급이 많았음
- 9월 수도권 주요 입주단지는 경기도 구리시 구리갈매보금자리 (1,108세대),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A29 (1,401세대), 인천 남동구 인천서창2청광플러스원 (582 세대)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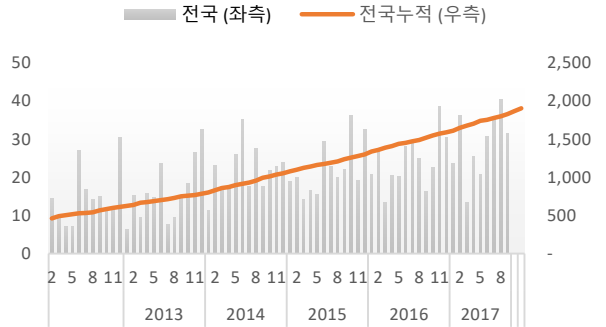
❖ 입주 예정 물량

- 10월 입주예정물량은 30,427세대로 전월 (31,333세대) 대비 906세대 감소함
- 지역별로는 경기도(12,117세대), 대구(3,819세대), 충남(3,128세대), 세종(2,257세대)순으로 입주예정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주요 입주예정단지는 경기 시흥시 시흥배곧호반베르디움3차 (1,647 세대),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사랑으로 (1,104 세대),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A21 (1,700세대), 경기 의정부시 민락엘리트A6 (1,540세대)임

[아파트 공급 물량]

(단위: 천세대)

(단위: 천세대)



자료: 부동산 114

[지역별 입주예정 물량]

(단위: 세대)

지역	2017년		
	10월	11월	12월
전국	30,427	36,526	51,751
서울특별시	2,257	1,865	552
경기도	12,117	11,471	26,211
부산광역시	157	2,237	316
대구광역시	3,819	1,181	296
인천광역시	-	4,897	5,993
광주광역시	-	1,068	1,611
대전광역시	-	765	1,176
울산광역시	760	520	857
강원도	1,658	1,720	1,512
경상남도	2,149	2,110	1,611
경상북도	851	1,683	1,545
전라남도	320	1,540	1,264
전라북도	165	302	1,721
충청남도	3,128	1,773	3,519
충청북도	-	2,768	2,605
제주도	522	128	596
세종특별시	2,524	498	366
수도권	14,374	18,233	32,756
수도권 외	16,053	18,293	18,995

자료: 부동산 114

[주요 입주예정 물량 목록]

(단위: 세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아파트	세대수
세종	-	소담동	LN펜타힐스(공공분양)	1,522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충주시티자이	1,596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배곧호반베르디움3차	1,647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도시사랑으로	1,104
	파주시	야당동	파주운정A21(행복주택)	1,700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엘리트A6(공공분양)	1,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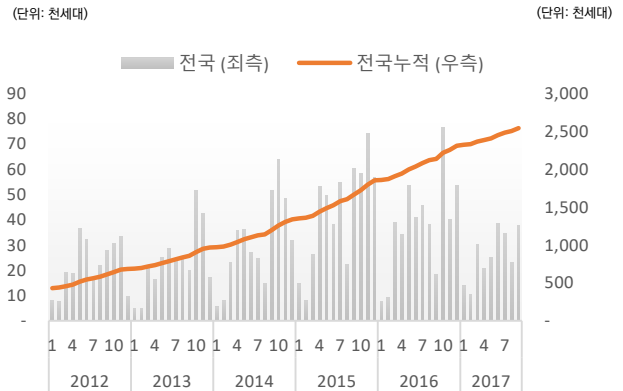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 114

분양동향

[아파트 분양 물량]

❖ 아파트 분양 물량

- 9월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37,820세대로 전년동월(18,481세대) 대비 104.6%, 전월 (23,130세대) 대비 63.5% 증가함
- 서울 4,971세대, 경기도 12,033세대, 인천 2,476세대로 수도권에서 19,480세대 분양이 이루어졌으며, 전체 분양물량의 51.5%를 차지함



자료: 부동산 114

❖ 분양 예정 물량

-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66,668세대로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일정을 미루어 두었던 분양물량이 집중되면서 2017년 월 평균 분양물량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함
- 10월 분양예정물량은 경기도 27,012세대 (40.5%), 서울 14,637세대 (22.0%)로 수도권에 분양물량이 집중됨
- 수도권 주요 분양예정 단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1,017세대),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스카이라인 (2,257세대), 경기 고양시 고양향동A3 (공공분양) (1,059세대) 등이 있음

[지역별 분양예정 물량]

(단위: 세대)

지역	2017		
	10월	11월	12월
전국	66,668	43,565	40,457
서울특별시	14,637	3,056	10,582
경기도	27,012	24,991	12,784
부산광역시	7,833	5,144	3,126
대구광역시	1,722	112	1,021
인천광역시	555	922	1,209
광주광역시	4,866	902	958
대전광역시	-	1,503	-
울산광역시	210	404	-
강원도	379	873	497
경상남도	3,583	-	2,734
경상북도	-	-	1,660
전라남도	2,168	520	853
전라북도	818	2,760	-
충청남도	2,505	-	1,297
충청북도	380	-	-
제주도	-	-	-
세종특별자치시			
수도권	42,204	28,969	24,575
비수도권	24,464	14,596	15,882

자료: 부동산 114

❖ 미분양 추이

- 2017년 8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대비 1,152세대 감소한 53,130세대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9,716세대, 지방은 43,414세대로 나타남
-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9,716세대로 전월 대비 2,401세대 감소, 지방은 전월 대비 1,249세대 증가하였음

[미분양아파트 재고]

(단위: 세대)

지역	2016					201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미분양	62,562	60,700	57,709	57,582	56,413	59,313	61,063	61,679	60,313	56,859	57,108	54,282	53,130
전월 대비	-565	-1,862	-2,991	-127	-1,169	2,900	1,750	616	-1,366	-3,454	249	-2,826	-1,152
수도권	21,356	19,021	17,707	18,235	16,689	18,938	18,014	19,166	17,169	15,235	14,350	12,117	9,716
수도권 외	41,206	41,679	40,002	39,347	39,724	40,375	43,049	42,513	43,144	41,624	42,758	42,165	43,414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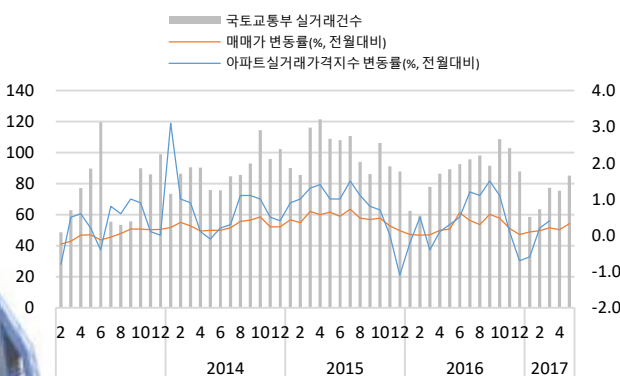
| 9월 동향 종합

- ❖ 8·2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매가격 상승률 둔화
- ❖ 서울시는 공급 부족, 강동구, 송파구 재건축 이주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서울을 제외한 전역에서는 지속적인 공급물량 증가로 전세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음
- ❖ 재건축 규제 영향으로 재건축 매매시장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 잠실진주아파트 사업시행인가 승인 등 재건축 개별 단지 호재로 재건축 매매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함
- ❖ 비 아파트 주택시장은 8월까지 아파트 매매가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비 아파트의 거래량 비중이 낮아지고 가격도 약세를 보였음

| 10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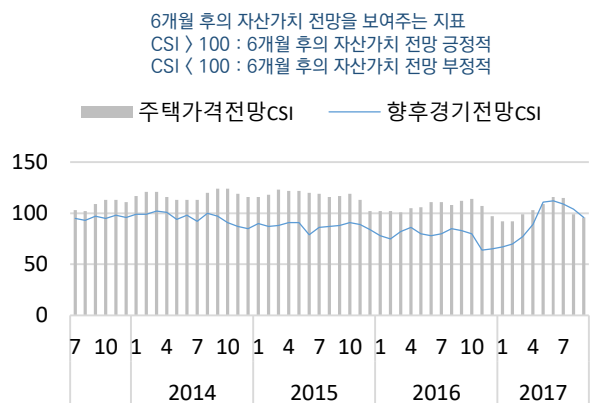
- ❖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점차적으로 법안이 개정되고 있어 10월에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강남 인기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 등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이슈가 계속되면서 주변 아파트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추석 이후 가을철 이사수요 증가로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전세가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으나, 12월까지 약 11만호가 공급예정으로 상승폭은 크게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8.2 대책으로 개편된 청약제도가 10월 분양물량에 적용예정으로 실주요자에게 가점 혜택이 적용되어 당첨 기회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 수도권은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아파트 분양물량 증가로 전국 분양물량(6.6만호)의 63.0%가 분양될 예정이며, 부동산 대책 발표로 미루어졌던 분양물량이 집중되면서 올해 가장 많은 분양물량이 예정되어 미분양물량 증가가 우려됨
- ❖ 향후 소비자 경기전망에 대한 CSI는 전월대비 8p 감소한 96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대비 3p 증가한 96로 나타남

[전국 실거래건수 및 매매가 변동률]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114

[소비자 심리지수(CSI)]



자료 : 한국은행